

David DeSilva 박사, 외경, 강의 9, 기독교 교회와 정경의 외경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세션 9, 기독교 교회와 정경의 외경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에서 기독교 정경과 기독교 교회에서 외경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고려합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유대 문학으로서 외경의 가치에 대한 좋은 사례를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 나는 다양한 기독교 정경에서 외경의 위치와 한 쪽 또는 다른 쪽이 내린 결정의 근거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 성경에서 외경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 교회가 수세기 동안 이 책들에 대해 논의했던 것과 동일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경전적 권위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유대인 공동체에는 아직 성경의 정경에 관한 공식적인 공식 성명이 없었습니다.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물려받았지만, 폐쇄된 정경은 회당에서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서 정경의 출현에 대해 함께 조금 생각해 봅시다. 앞서 언급했듯이, 3, 4세기 또는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교 정경 논쟁의 활력, 구체성, 엄격함의 수준에 도달하기 시작한 정경에 대한 내부 논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세기에 우리는 이미 신흥 유대인 정경 내에서 주요 그룹에 대한 광범위한 언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카베오서 2서와 마태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를 정의하고 인도하는

권위 있는 문헌 모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자주 언급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문헌을 세 부분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 시라(Ben Sirah)의 서문에서 기원전 132년경 벤 시라의 손자는 율법, 선지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다른 책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율법서, 선지자서, 시편에 자신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아마도 다른 책들 중 가장 중요한 대표서라고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반영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생활. 이제 이러한 범주 중 첫 번째인 토라나 오경, 즉 모세 다섯 권의 권위에 대해 어떤 논쟁이나 논의 없이 분명한 합의가 있습니다 .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사도의 권위에 대해서도 논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선지자들은 벤 시라 49:10에서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벤 시라 시대에 이미 12명의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지자에 관해 말할 때,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초기 선지자라고 일컬어왔던 역사서들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전의 세 번째 부분인 다른 책들도 인정되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 경계는 거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논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부 유대인 그룹은 토라를 주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경전 주위에 좁은 원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선지자서를 읽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토라가 핵심 정경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 그룹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쿰란 공동체에서는 First Enoch 및 Jubilees와 같은 책을 권위 있는 텍스트로 언급하며,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책을 취급합니다. 여담이지만, 유다서인 유다는 흥미롭게도 에녹 첫째의 구절을 낭송하고 그 구절이 청중들에게 권위 있는 본문으로서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서기 1세기 말에는 유대교 내에서 신성한 책들의 폐쇄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세푸스는 아피온 에 맞서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변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모든 기록이 들어 있는 책이 22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이라고 믿었다. 다섯 개는 모세의 것인데, 여기에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인류의 기원에 관한 율법과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행해진 일을 13권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네 권의 책에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송가와 인간 생활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즉시 22권의 책이 생각나실 겁니다. 37개 있는 줄 알았는데

요세푸스와 그의 동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이 책들을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 소선지서 12서는 12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두루마리 곧 12권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22권 가운데서 한 권으로 본다.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두루마리를 차지하더라도 한 권으로 본다. 그러므로 요세푸스여, 우리는 요세푸스의 22서에서 우리 정경 구약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마도 두 개의 저서가 아닐 수도 있고 에스더서와 전도서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 4서, 에스라하 3-14장의 저자는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영감받은 책 24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24권을 허용한다면 기본적으로 구약성서나 히브리어 성경을 나누는 37권 모두를 갖게 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1세기 말에 초기 랍비들은 자신들의 글에서 몇 권의 책의 권위에 관해 선언할 필요성만을 느꼈습니다.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에스더서와 전도서에 대한 확언을 발견하지만, 벤 시라크의 지혜에 따라 신성한 성경의 지위를 부인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1세기 말에는 실제로 많은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유일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가서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는 2세기에 일부 랍비 문헌에서 아가서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네 권은 실제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유일한 책이 될 것이며,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Ben Sirach가 포함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에스더서, 전도서, 아가서가 제쳐두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전도서 등을 선택하면서 벤 시라크(Ben Sirach)와 같은 책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문헌에 실제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두 번째 성전의 재건이 완료된 후에는 예언의 음성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확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예언의 목소리가 그쳤습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완료하기 위한 마지막 추진력과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솔로몬에게 헌정된 전도서는 기원전 9세기의 문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시대의 본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언의 목소리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등장하기에 충분히 이른 것입니다.

아피온(Apion)에 반대하는 같은 책에서 요세푸스(Josephus)는 이것이 일차적인 근거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실제로 아닥사스다 이래 매우 정확한 방식으로 기록되었지만, 아닥사스다 시대 이후로 선지자들의 정확한 계승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전자와 같은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텍스트가 생산되고 이스라엘의 신성한 역사를 증언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은 예언의 목소리가 그쳤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지시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마카베오서의 여러 본문을 참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랍비의 본문에서도 같은 종류의 연대기적 논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벤 시라의 책과 그 이후에 쓰여진 모든 책은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예언의 목소리가 그쳤습니다. 여기서 랍비 문헌이 정경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반직관적인 은유를 사용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신성한 책은 손을 더럽힌다. 그들이 실제로 전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다음 일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경이 아닌 책은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제, 폐쇄된 정경에 대한 합의가 커진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 정경 밖의 텍스트를 읽거나, 소중히 여기거나, 심지어 존중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한 것처럼 Ben Sirah는 랍비 문헌에서 거의 100번 인용됩니다. 가끔 그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한다.

때로는 그의 자료가 이름이 아닌 인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의 자료가 마치 잠언에서 나온 것처럼 낭송되기도 합니다. 랍비들이 저지르는 특이한 실수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소중한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있고,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이 책은 그저 평범한 책일 뿐이다. 읽을 가치가 있는 현자의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경의 모든 책을 조사하면서 이미 접한 2nd Esdras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분명히 신의 영감을 받은 이 불 같은 혼합물을 마신 후 40일 이내에 94개의 두루마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4권의 정경을 재구성하고 또 다른 70권의 책을 지시하는데, 이 책은 오직 합당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만이 읽어야 합니다. 이 정경 외의 책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에스라 4장이 등장하는 이 밀교 집단에 의해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밀교 집단은 자신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대 정경에 대해 생각할 때, 알렉산드리아 정경의 신화에 대해 생각하는 데 짧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사라지고 있는 신화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보다 훨씬 더 넓은 표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책에서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정교회 작가들 사이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프로필을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의 정경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정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4세기와 5세기 기독교 교회의 소위 70인역에서 발견되는 내용이 그리스도 당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70인역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1세기의 70인역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70인역이란 기원전 250년경에 일어난 토라의 헬라어 번역, 그리고 결국에는 선지자들과 저술물의 헬라어 번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70인역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기독교 교회의 대필사본인 시내산 사본과 4세기와 5세기에 제본된 초기 기독교 교회의 성경입니다. 후자의 내용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기독교 시대 이전이나 기독교 시대 이후에 정경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로부터 얻은 모든 증거는 그들이 성경의 경계에 대한 감각 측면에서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 이상으로 나아간 적이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정경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글썄요, 첫째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확실히 권위 있는 성경 전체를 물려받았지만, 교회가 너무 일찍 탄생하여 회당에서 폐쇄된 성경 목록을 당연하게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나는 초대교회가 자신의 독특한 신앙, 소망, 정신이 반영되고 뒷받침되는 더 큰 본문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독교 정경은 우리가 바울 서신, 복음서, 다른 사도들의 서한 등을 채택하기 때문에 유대 정경보다 훨씬 더 두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런 종류의 문학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특정 성경 본문을 물려받았지만, 바울의 편지는 이 새로운 그룹에게 권위 있고, 도움이 되고, 기초가 되고, 따라서 결국 정경이 되는 글로 매우 빠르게 등장합니다.

초대 교회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러한 본문을 추구하면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신성한 성경과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한 신약성서의 본문 외에 다른 유대교 본문에 높은 권위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기 교회에서 외경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와 그의 초기 추종자들은 벤세라, 솔로몬의 지혜, 토비트를 경전의 일부, 신성한 텍스트의 정경의 일부로 여겼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쓰여진 것과 같은 인용 형식이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경의 자료에 권위를 부여하는 다른 소개 형식을 사용하여 외경의 한 구절을 암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나 신약 성서 기록에 있는 일부 외경 기록의 틀림없는 각인은 예수, 바울 및 기타 사도 시대의 목소리가 그 내용을 윤리, 하나님에 대한 성찰 및 기타 문제의 자원으로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2세기와 3세기를 더 많이 바라보고 있으며 경외서를 성경과 함께, 심지어 많은 경우에 성경으로 평가하는 것이 뚜렷한 기독교 현상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세기와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벤 세라의 지혜가 미치는 영향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벤 세라의 지혜'를 알아야 할 수도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기초 문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이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현재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인 외경이 그들 자신의 투쟁에 도움이 되는 자원임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마카베오 2세와 4세의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흥 교회로서 우리가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때 일류의 영감을 주는 문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유대인 공동체가 이 본문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개신교인들이 외경(Apocrypha)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이 책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해 초기 세기부터 계속되는 논쟁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정경에 대한 유대인의 정의를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와 사도들에 관한 그들의 정경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 논쟁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아마도 두 가지 중에서 더 보수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특정 책의 어떤 텍스트가 기독교 교회에서 해당 책의 정경 형식으로 기능해야 하는지, 그리스어 형식 또는 그리스어 형식으로 기능해야 하는지입니다. 히브리어 형태? 이 질문은 이미 에스더의 더 큰 버전인 다니엘에 추가된 사항과 이상하게도 예레미야서에 추가된 것으로 거의 동일하게 간주되었던 바룩과 예레미야서에 대한 추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뭉치 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레니우스의 이단 반대나 히폴리투스의 다니엘 주석의 히폴리투스와 같은 권위 있는 인물들은 그리스어 형식, 즉 이러한 문헌의 더 두꺼운 형식을 지지하고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지 12장만이 아니라 14장 전체에 대해 주석을 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쓴 유명한 39번째 축제 서신은 신약성서 정경의 초기 문서화에 꼭 필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같은 축제 편지는 구약성경의 정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타나시우스는 솔로몬의 지혜나 벤 시라의 지혜와 같은 외경적인 책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와 신명기와 함께 그것들의 사용을 장려하지만 동등한 지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니엘과 에스더의 그리스어 본문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므로 다니엘에 추가된 내용과 에스더에 추가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3세기 초에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Julius Africanus)라는 기독교 학자가 이 관행에 대한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유대에서 생활하고 배우는 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 관습, 유대인 텍스트 및 이러한 책의 텍스트 유형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다니엘서의 부분이 기독교 교회에서 어떤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원문에 썼습니다. 그리고 오리진(Origen)은 아무리 말해도 그에게 활기찬 반응을 보여줍니다.

원산지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리 학교의 교장입니다. 그 자신은 히브리어 학자이다. 그는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 전통과 그것이 헬라어 본문 전통과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누스에 대한 응답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제기한 것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하면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성경 번역판을 부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거부해야 합니까? 그리고 기독교 교제들에게 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성한 책들을 버리도록 촉구하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변경되지 않고 위조되지 않은 사본을 우리에게 주도록 설득하기 위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동일한 섭리가 값으로 구속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경우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생각하고 너희 조상들이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오리겐은 아프리카누스가 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틀렸다는 점을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주장을 사용합니다. 한편으로, 기독교 교회들은 현재 수세기 동안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의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행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세운 이정표를 없애라. 그러나 그는 또한 이러한 신학적 주장을 꺼내 질문을 제기한다. 이제 이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이 놀라운 선물과 대가를 받아들인 우리보다 더 나은 본문 유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하고 교회에서 사용해야 하는 성경 본문 유형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이 주장은 기독교 교회에 대한 문제를 대체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다니엘 대 그리스 다니엘, 히브리어 에스더 대 그리스 에스더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은 논쟁은 없습니다.

몇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두 번째 질문을 계속 제기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경이 구약의 기독교 정경을 결정짓는가? 회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 27권을 기독교 교회가 이미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제쳐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 짧은 구약성경의 정경을 옹호하는 많은 중요한 초기 교회 교부들을 발견합니다.

비록 이들 교부들 중 일부가 히브리어 정경의 일부 책의 더 긴 본문을 장려하는 반면, 2세기 후반에 사데의 멜리토는 자신의 구약성서 목록을 제시했는데, 이는 에스더를 뺀 현대 개신교 정경과 일치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의 연구의 결과로. 그가 말한 바로 그 장소, 또는

유세비우스가 말한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선포되고 일어났습니다.

오리겐 이후 100년 후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아타나시우스는 현재 에스더를 포함하여 동일한 더 짧은 구약성서 목록을 홍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니엘과 헬라어 에스더, 바룩, 예레미야서에 추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유명한 축제 편지에서 정경에 관해 썼습니다.

이 책들 외에도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새로 우리와 함께하고 경건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읽도록 조상들이 정한 책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시라크와 에스더와 유딧과 토빗의 지혜와 소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불리는 것, 우리가 디다케와 허마스의 목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이여, 전자, 즉 나열된 모든 정경이 정경에 포함되고 후자는 단지 읽기만 할 뿐입니다.

어디에도 외경적인 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외경적인 글을 통해 그가 방금 나열한 솔로몬의 지혜와 집회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서둘러 덧붙입니다. 그는 신약의 외경, 도마복음과 같은 영지주의 복음서, 바울과 테클라의 행위와 같은 사도들의 이질적인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더 짧은 구약 정경의 묘사인 종교 개혁에서 다시 나타날 입장이지만, 솔로몬의 지혜, 시라크의 지혜 등과 같은 추가 책들의 독서를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교화하는 유용한 문학이지만 단순히 정경의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짧은 구약 정경의 히브리어 버전과 정경의 히브리어 텍스트 유형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는 4세기 학자이자 주교인 제롬이었습니다. 제롬은 팔레스타인에서 랍비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히브리어 본문에 주로 기초하여 불가타 성서(Vulgate Bible)로 알려지게 될 라틴어 번역판을 발행했습니다. 그는 다니엘, 에스더,

예레미야서의 헬라어 역본과 히브리어 역본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표시했습니다. 비록 그가 전체 번역본을 제공했지만 말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을 교회 서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시 그는 그것을 번역했지만 두 번째 책으로 표시했습니다. 교회의 의미는 기독교 교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교회에서 적절하게 읽혀지고, 교화적인 자료로 사용되지만 책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동시대인 제롬의 의견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빗, 유딧, 마카베오 1서와 2서, 에스드라 1서, 벤 시라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명명했는데, 구약성경의 관습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는 벤 시라크의 것으로도 명명했습니다. 서방 교회 기독교인 들의 대다수는 이 책들이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입장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작성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서 읽어야 할 책 목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에 추가된 내용은 어거스틴이나 이 목록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서구에서 사용되는 다니엘과 에스더의 그리스어 텍스트 유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오리겐의 스승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가 솔로몬의 지혜와 벤 시라크의 지혜를 경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에서 뛰어난 신인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다니엘과 에스더의 헬라어 본문과 더불어 토비트, 유딧, 벤 시라크, 지혜, 예레미야서의 추가본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정경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증거는 4세기와 5세기의 성경, 즉 성경의 제본된 코덱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앞표지와 뒷표지만큼 무엇이 포함될지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4세기와 5세기에 남아 있는 세 가지 코덱스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내 사본에는 첫 번째 Esdras, Tobit, Judith, 첫 번째 및 네 번째 Maccabees, 솔로몬과 Ben Sirach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들 모두는 더 긴 형식을 유지하므로 다니엘과 에스더에 추가된 내용도 보존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세 가지 모두 사이에 추가 책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바티칸 코덱스에는 첫 번째 에스드라서, 솔로몬의 지혜, 벤 시라크의 지혜, 유딧, 토빗, 바룩, 예레미야서가 포함되지만 마카베오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 에는 바룩, 예레미야서, 토비트, 유딧, 최초의 에스드라서, 마카비서의 네 권의 책 모두, 시편 151편과 므낫세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성경적 찬송가이자 어느 정도 성경 외의 찬송가 모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 외의 시편 151편과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코덱스 중 두 권에는 신약성서의 일부 책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편은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나바의 서신과 헤르마의 목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누스는 요한계시록 뒤에 첫째와 둘째 클레멘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목차에 따르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솔로몬의 시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신약성서의 부록에 있는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록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두꺼운 신약성경의 정경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언급한 외경들은 모두 구약성경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구약성경이 무정형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가톨릭 교회 자체의 종교 개혁에 이르기까지 구약 정경의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고리 대왕,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 빅토르의 위그, 라이라의 니콜라스, 심지어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반대자였던 토마스 카제탄 추기경까지도 외경을 좁은 책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약 정경. 동방에서는 그레고리 나지안주스(Gregory Nazianzus)가 외경 본문을 설교하는 동안에도 구약 정경의 단축을 주장했습니다

. 이제 이 기간 전체에 걸쳐 어느 시점에서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건과 신실함의 모델을 제공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책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윤리적 지식을 보충하는 외경의 가치입니다. 유용한 기독교 교회.

이제 우리는 외경과 종교개혁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만이 원칙은 성경만이 교회 공의회, 교황, 스콜라 신학, 전통의 지배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교리와 실천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규범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전 개혁가들은 외경에 관한 역사적 논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을 통한 행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외경에는 특히 문제가 있는 텍스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과 함께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 두는 것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로를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텍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끌어올 수 있는 공로의 보고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카베오서 2장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구절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헌금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본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모든 1세대 개혁가들 사이에서는 외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사용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개혁가들 자신도 계속해서 이 본문에 대해 높은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은 외경이라고 생각하는 책들을 번역하는 데 수고를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서에 추가한 부분과 에스더서에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것들을 구약의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성서 사이의 별도의 섹션에 배치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들은

연대순으로 속합니다. 그의 서문에서 이 첫 번째 인쇄된 외경에 이르기까지, 성서 사이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 책들은 비록 성경처럼 평가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읽기에 유용하고 좋은 책들입니다. 그가 외경 중 특정 책에 쓴 다른 서문 중 일부를 살펴보면 외경의 책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평가하는 다른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사실상 그의 루터 신자들에게 계속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그 안에 좋은 내용이 많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이 책은 제1계명의 좋은 설명이자 예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단지 외경을 홍보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뒷면에는 이제 제가 지지하는 목록이 있을 텐데요, 마틴 루터의 글을 읽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루터의 서문에서 마카비 1서까지 우리는 이 칭찬을 읽습니다.

이 책은 히브리어 성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책 중 하나이지만, 이 책의 말씀과 대화는 성경의 다른 책들만큼 계몽적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11장에서 증언한 것처럼 이 책은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책을 읽고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거기에서 루터는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서 중간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고 매우 올바르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1장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따르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4세의 활동에 대해. 그리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 11장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카베오 일서를 읽고 친구약 중간의 역사에 익숙해졌습니다. 스위스

개혁가들은 또한 대부분의 후손들이 취한 견해와 비교할 때 외경에 대해 높은 견해로 간주되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는 1531년 취리히 성경 서문에서 자신이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 인쇄한 외경이 구약의 일부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경외서에는 경건한 삶과 교화를 촉진하는 참되고 유용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외경을 거울에 비유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구약성서의 정경들을 경건함이 분명하게 반영되는 거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외경은 물을 때로는 맑고 때로는 어지럽고 어수선한 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그는 마카베오 2서 12장과 토비트 4장을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들을 비판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언하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까지 인용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내가 여기서 밝혀내고 싶은 중요한 점은 그가 실제로 외경을 읽고 샅샅이 살펴보라고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545년 취리히 신앙고백서 역시 그 내용이 정경에 맞게 해석된다면 외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용하고 유익하다고 확증합니다. 존 칼빈의 입장은 그의 초기 저술에서도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종종 존 칼빈이 쓴 것으로 여겨지는 1546년 제네바 성경의 구약 서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외경이 훌륭하고 유용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한 경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는 외경인 책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용문들, 즉 인간에게서 나온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책들을 주의 깊게 구별합니다.

물론 중요한 재세례파 경건주의 운동인 메노파와 재세례파의 아버지인 메노 시몬스(Menno Simons)도 외경에 대해 매우 높은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 사실, 그는 동료 개혁가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히브리어 성경의 책들과 함께 그것들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티오코스 4세 치하의 순교에 관한 본문인 마카베오서 1장과 마카베오서 2서 6~7장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가톨릭과 개신교 반대자들의 박해에 맞서 아나뱃티스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종교개혁에서 우리는 외경의 적절한 사용을 다시 한 번 칭찬합니다. 우리에게 종교조항 39개를 준 토머스 크랜머(Thomas Cranmer)는 제6조에 썼는데, 다른 책들은 제롬이 말했듯이 교회는 삶의 모범과 예절의 교훈을 읽기는 하지만 어떤 교리를 확립하는 데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는 외경을 신학 문제에 사용하는 것과 경건, 헌신, 윤리 문제에 외경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 유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경의 낭독은 새로 형성된 영국 교회의 공공 예배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쇄된 모든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야 했지만, 루터 성경과 제네바 성경처럼 별도의 부분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이제 개혁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훨씬 덜 알려진 1442년 피렌체 공의회에서 내려졌던 이전 결정을 재확인했는데, 그 당시 이 공의회는 이미 카톨릭 교회 내에서 다수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토빗서, 유딧서, 지혜서, 벤 시라서, 바룩서, 마카베오 첫째와 둘째, 그리고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의 긴 역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구약 성경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확증합니다.

가톨릭 교회 측의 이러한 단호한 확언이나 재확인은 일부 개신교인들 사이에 반운동을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것은 외경의 가치에 관해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덜 온건해지도록 일종의 반응 형성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나중에 트렌트 공의회 이후에 인생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책들의 읽기를 완전히 저주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생애 동안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종교 개혁 교회에 대한 반응으로 이것을 점점 더 문제로 삼으면서 그들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확인에서 훨씬 더 큰 유보로 옮겨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운동 사이의 정의.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칭찬도 없이 외경을 인간의 저술과 나란히 평가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신성한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정경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위가 없으며 다른 인간이 승인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책들을 읽습니다. 저.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 본문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외경에 대한 순전히 부정적인 진술입니다. 즉 외경이 읽기에 여전히 좋고 유용하다는 긍정적인 진술 없이는 외경이 가질 수 없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개신교 평가, 즉 외경에 대한 종교개혁 시대 평가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루터나 츠빙글리의 입장도 아니고, 트렌트 전 공의회인 칼빈의 입장도 아니라는 점을 서둘러 지적합니다.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이러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외경과 함께 인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고 1631년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Joachim Morgenweg가 1708년에 함부르크-루터 성경을 출판했을 때에도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Morgenweg는 또한 Apocrypha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관행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이 책들이 구약성서에 첨부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 훌륭한 집안 규율, 건전한 도덕적

가르침은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기원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631년 이후 개인용 성경은 외경 없이 인쇄되기 시작했지만 교회용 성경, 큰 제단 및 설교단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년도 . 외경 없이 성경을 인쇄하는 일은 교회 단체가 아닌 성경 출판사에 의한 혁신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혁신을 통해 그들은 교회용으로 생산되는 성경보다 20% 더 얇고 따라서 20% 더 저렴한 개인 구매 및 소비용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모든 성경에서 외경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매우 비개혁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과 성서 협회들은 마침내 19세기에 대부분의 인쇄된 개신교 성서에서 외경을 제거하는 일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대부분의 성경 인쇄에 사용되었던 그들이 모금한 기금이 추가 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전의 출판과 보급을 위한 기금이었다는 근거로 이를 주장했습니다. . 외경에 대한 접근이 줄어들면서 그 내용에 대한 무지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편견 및 논쟁이 결합되어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외경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본문들이 좋고 유용하다는 종교개혁자들의 판단은 잊혀졌습니다.

외경은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기능했습니까? 동방정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책들을 중역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행과 관련하여 우리가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에는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 매우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 충실하여 그들은 특정 외경의 사용과 권위에 관한 다양한 지역적 견해와 관행, 역사적 결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처음부터 늘 그래왔던 상황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분의 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이다. 그리고 정교회를 더욱 분열시킬 수 있는 결정을 강요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논쟁과 모호함을 용인하십시오.

트렌트 공의회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외경으로 이야기해 온 대부분의 책을 구약의 일부로 확증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다시 토비트, 유딧, 에스더와 다니엘의 헬라이어 역본이 포함되며, 따라서 모든 판, 솔로몬의 지혜, 벤 시라의 지혜, 바룩, 예레미야서, 마카베오 상하서가 포함됩니다. 성공회와 성공회 교회에서는 이것들이 분명히 정경적인 구약 본문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택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는 그 독서는 특정 주일이나 특정 행사에 대한 성구집의 선택 수업으로 남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바룩 3장은 여전히 '아, 그리고 지금은 당황스럽다'와 연결된 선택 레슨이다. 나는 정확한 사건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 용도에 따라, 장례 및 결혼 예식에서도 솔로몬의 지혜서 3장이나 토비트 8장이 읽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기도와 삼세의 노래는 오늘날까지 영국성공회 전체의 아침 기도 전례에서 찬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것을 교회에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대체로 이들 개신교 교회의 창시자들의 권고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내에서 거의 2,000년 동안 지속된 논쟁은 보편 교회의 외경을 구성하는 책들의 중요성을 입증합니다.

즉, 이 모든 정경 논쟁의 역사에서 제가 얻은 주요 내용은 기원전 250년에서 서기 100년 사이에 쓰여진 모든 유대 문헌 중에서 기독교 교회가 이 책들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들은 결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심지어 자신의 정식 지위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논쟁의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이 책들을 구약의 나머지 정경과 동등한 가치로 간주하거나 성경 수준 바로 아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Martin Luther와 Ulrich Zwingli, 심지어 초기의 John Calvin을 포함하여 Church Universal이 가장 적게 권장한 입장은 Church Universal이 존재하는 동안 크게 소중히 여겨온 이러한 텍스트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심지어 경멸하는 입장입니다.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세션 9, 기독교 교회와 정경의 외경입니다.